

실로암  
전국시각장애인  
볼링클럽대회



“희망을  
글리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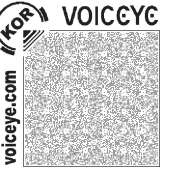
국내 유일한 '실로암 전국시각장애인 볼링클럽대회'가  
12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즐겁게 볼링을 치며, 자신감을 높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주세요.

후원 문의 02.880.0868

빛을 주는  
실로암

이웃을 내 몸 같이,





겨울이 잠이고 봄이 탄생이며  
여름이 삶이라면  
가을은 숙고의 시간이 된다.  
이제 지난 일을 반추할 때다.

\_미첼 버지스(Mitchell Burgess)

제호 격월간 「빛을 주는 실로암」  
발행일 2015년 9월 30일 통권 121호 이사장 김선태 발행인 김미경 편집인 함요한, 배지혜  
발행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주소 (151-84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17 (은천동 931-7)  
TEL 02, 880, 0500 FAX 02, 887, 1120 E-mail silwel@chol.com Homepage http://www.silwel.or.kr  
트위터 https://twitter.com/silwel2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ilwel2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silwel.do  
Telnet bbs.silwel.or.kr Web BBS http://web.silwel.or.kr ARS 02,880,0900 문의 홍보팀 02,880,0867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 2275, 6960

07+08  
July August

# Contents



- 04 **포커스**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호주 공연 성료
- 08 **새소식**  
몽골, 키르기스스탄 장애인 위한 기증식 진행
- 10 **희망나눔**  
시각장애인 문화해설사\_유경숙 님
- 11 **사랑나눔**  
자원봉사자\_송혜은 님
- 12 **해피스토리**  
사진으로 만나는 7월~8월 사업 현장
- 16 **문화산책**  
영화 <마리아>가: 손끝의 기적
- 17 **정보&이슈**  
13세 소년이 만든 '레고(Lego) 점자프린터' 화제
- 18 **미리보기**  
10, 11월 행사 안내
- 19 **나눔플러스**  
후원안내

# 한국 전통음악으로 호주를 물들이다

## 관현맹인전통예술단, 호주 공연 성료

시각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지난 7월 17일,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평소 예술성이 뛰어난 음악인들을 존중하는 시드니오페라하우스가 우리 국악단체에도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인데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귀로 소리를 살피며 묵묵히 자신만의 음악을 다듬어온 이들이 어떠한 음악으로 현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지금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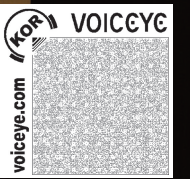
꿈의 무대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 서다

7월 17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공연은 전 좌석이 매진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단원들이 안내보행을 받으며 무대 한 가운데 올라 연주를 시작하자 관중석은 숨소리마저 죽이며 이들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깊은 정적을 끊고 시작된 대금과 피아노 듀엣곡 '다향'. 애절하고 호소력 있는 대금 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으며, 사물놀이 '소리 빛' 공연 또한 단원들의 역동적인 두드림과 신명나는 리듬 때문에 공연장 분위기를 한껏 뜨겁게 달궜습니다.

90분 간 이어진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아리랑 연곡'.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리랑 연곡'과 '아름다운 나라' 가 울려 퍼질 때, 많은 교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따뜻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이휘진 주시드니 총영사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뛰어난 실력에 놀랐고,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음악에 다시 한 번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으며, 안신영 주시드니 한국문화원 원장은 "시드니오페라하우스 가득 울려 퍼지는 아리랑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HWACHO SAGEORI  
“화초 사거리”



현지 학교, 교회에서 의미 있는 공연 진행

관현맹인예술단은 시드니오페라하우스 공연 외에도 7월 16일부터 28일까지, 호주 시드니와 수도인 캔버라 일대의 호주 국립대학교, 시드니대학교, St. Edmund's School, Redeemer Baptist School, The Hills School, 실로암장로교회 등에서 한국의 역사와 전통예술을 알리는 의미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호주국립대학교의 초청 공연에서는 200여 명의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호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시드니대학교에서도 300여 명의 관객들에게 세 번의 앵콜 요청을 받는 등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호주국립대학교 공연을 관람한 김봉현 주호주 대사는 “현지인들에게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공연은 큰 화제가 되었다. 특히, 사물놀이에서 장구를 연주하는 손놀림에 눈을 떼지 못했다. 앞으로도 한국 전통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우리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돌아온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은 앞으로도 국내 뿐 아니라 다수의 해외 공연을 진행하여 전 세계인들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세종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이 국악 한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연 후기〉

가슴을 울린 아름다운 하모니

홍길복 목사  
시드니 신학대학 교수,  
실로암 호주 후원회 이사장



음악은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나라와 민족, 언어를 넘어 평화와 일치의 상징이지요. 관현맹인전통예술단의 연주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였습니다. 이들의 공연은 물질만능주의로 가득 찬 호주에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주회는 저에게 그리고 호주 사회에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인 호주에서 가장 한국적인 전통음악을 전함에 따라 호주의 문화가 풍성해졌습니다. 이곳은 세계 180개국 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데 모인 땅이라 음식, 언어, 예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야말로 함께 살아가는 'Living Together' 사회이자 수많은 꽃들이 함께 피어나는 'Multicultural Flower Bed' 이지요. 그간 한국의 전통음악이 호주에 소개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요즘처럼 K-Pop이 우리나라 음악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공연은 한국의 깊은 전통과 예술을 보여주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둘째,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격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자립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번 연주회에서 단원들은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사람인 양 행동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단원들의 연주는 오만한 생각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무언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원들은 무명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이들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희망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어주는 이들의 모습에서 음악 이상의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혼자 느낀 감동은 아닐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호주에 한국의 전통가락이 울려 퍼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김선태 목사님, 최동익 국회의원님, 김미경 관광장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더불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한 관현맹인전통예술단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개도국 장애인에게 희망의 빛 전하다 몽골, 키르기스스탄 장애인 위한 기증식 진행



## 몽골 장애인 재활치료 위한 기증식 진행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장애인지원사업이 개발도상국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4월 30일(목), 몽골국립의과대학과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7월 31일(금) 몽골국립의과대학 Ceremony Hall에서 기증식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업은 몽골의 장애인 재활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전문 인력의 역할을 강화시켜 향후 몽골이 양질의 장애인 재활치료를 독립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증식에는 김미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을 비롯해 최동익 국회의원, S.Odontuya 몽골 국회의원, L.Sodnomtsogt 몽골국립의과대학 부총장,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원석 사무총장, 몽골주재한국대사관 이재유 참사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S.Odontuya 몽골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몽골의과대학의 전문 인력과 한국의 우수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선진 장비가 만났기 때문에 큰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전문 의료진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몽골 장애인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따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6월부터 몽골국립의과대학의 재활치료실을 리모델링하고 재활치료장비 50종을 지원했으며, 재활의학과 의사와 물리치료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에 다양한 장애인재활기자재 전달

몽골 기증식에 이어,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월 3일(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스스탄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기자재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기증식에는 김미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 최동익 국회의원, 주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정병후 대사, Dastan Bekeshev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원석 사무총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미경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장은 “어렵게 살던 한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돕는 지원국이 되었다. 우리가 키르기스스탄 장애인들을 돕는 이유는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다. 한국 국민들이 그랬듯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도 희망찬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현지 국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기증한 물품은 지체장애이용 클러치 팁 2,000개와 청각 근로장애인을 위한 재봉기 5대, 흰 지팡이, 점자명함제작기, 교육 및 사무용 기자재 등인데요. 이밖에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점자도서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를 전달했으며, 장애대학생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및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국제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개도국 장애인들을 적극 지원하는 중입니다.

국제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개발도상국은 총 7개국으로 몽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장애인 재활치료,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교육재활 등이 진행 중이며,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르칼팍스탄 공화국, 탄자니아에서는 실로암안과병원과 협력해 개안수술 거점병원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수술실 구축 및 개안수술 등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더 많이 일하고 싶어요”



시각장애인 문화해설사 유경숙 님

지난 8월 25일, 덕수궁에서는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리고 흰 지팡이를 든 관광객들에게 큰 목소리로 덕수궁 곳곳을 안내하는 문화해설사 유경숙(49세, 시각2급) 님. 그녀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라는 편견에 맞서며, 좋아하는 일을 찾아 묵묵히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문화해설사는 조금 생소하고도 전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문화해설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나요?

종로구에서 문화해설사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 친구가 저와 잘 맞을 것 같아 적극적으로 추천해줬어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2013년도예요. 덕수궁에서 시각장애인 문화해설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서 도전했는데 감사하게도 뽑힌 거죠. 면접도 보고, 교육도 받고, 시험도 봤어요. 나름 힘든 과정이었습니니다. (웃음)

### 문화해설사 외에 다른 활동은 안 하시나요?

여성장애성폭력 상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시각장애인이 문화해설사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용자가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신청자가 있을 때마다 일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일하고 싶거든요! (웃음)

### 문화해설사로서 일하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데,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은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현장에서 적용하죠.

### 시각장애인 관람객들은 어떤 방식으로 배려하시나요?

높은 턱이나 계단을 피해서 걷고, “바로 앞에 있는, 세 발자국 떨어져서 있는”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또한 돌조각상 하나라도 직접 만져보게 하는 등 최대한 촉각을 사용해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오늘 진행된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행사에 참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체험에 참여하신 분들이 안대를 쓰고 보행하는 걸 보면서 예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2003년도에 황반변성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후 몇 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다 2009년에 처음으로 기초재활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때 흰 지팡이를 잡고 안대를 쓴 후 보행 연습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당시 제 모습이 떠올라 뭉클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 시간들을 잘 지내온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커요.

###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문화해설사로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어요.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역사의 면면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일이 재미있고 보람되거든요. 또한, 시각장애인 문화해설사로서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잘해야 더 많은 시각장애인 문화해설사들이 생길 테니까요. 나아가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봉사해야 행복한 여자



자원봉사자 송혜은 님

20대의 얼굴은 자연의 산물이지만, 50대의 얼굴은 살아온 공적이라고 했다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얼굴이 된다. 좋은 생각을 가져도 좋은 얼굴이 된다. 내 속에 있는 그늘만 바라보다가 봉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 자족(自足)과 행복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송혜은 님. 순수한 웃음을 머금은 그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녀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롯이 느껴졌다.

### 복지관 내에서 인기 많은 거 아시죠? 식사 때마다 친절하게 국을 떠주기로 유명합니다.(웃음)

네, 지금은 그래요. 예전부터 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주변의 독고어르신들을 돕는 봉사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한 건 2013년인 것 같아요. 당시 남편과 사업을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집에만 있으니 저의 문제점과 그늘만 보게 되더라고요. 한때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던 중 봉사하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이 생각나서 다시 봉사를 시작했죠.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봉사를 하니 몸과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체했었는데 이젠 체하지도 않아요. 더 건강해졌죠. 봉사체질인가봐요.(웃음)

### 저희 복지관에서는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작년에 목욕봉사를 시작으로 실로암복지관과 인연을 맺었어요. 그 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식당봉사를 시작했죠. 지금은 월요일, 목요일에 와서 배식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각장애인 분들과 짝을 이뤄 산책하는 건강걷기 봉사도 했고요. 등산교실 봉사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웃음)

### 대단하세요. 거의 매일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그래요. 예전부터 봉사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주변의 독고어르신들을 돕는 봉사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한 건 2013년인 것 같아요. 당시 남편과 사업을 준비하다가 잘 안 돼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집에만 있으니 저의 문제점과 그늘만 보게 되더라고요. 한때는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던 중 봉사하면서 즐거워했던 모습이 생각나서 다시 봉사를 시작했죠.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봉사를 하니 몸과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체했었는데 이젠 체하지도 않아요. 더 건강해졌죠. 봉사체질인가봐요.(웃음)



### 제일 기억에 남는 봉사는 무엇인가요?

목욕봉사로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같이 목욕하고, 말벗도 해드리면서 마음에 힐링이 많이 됐어요. 건강걷기를 같이 했던 시각장애인 분도 생각이 나요. 중도실명을 하신 후 자살을 생각할 만큼 우울감이 심했던 분인데, 4달 가까이 자연 속에서 걷고 이야기 나누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서로 속 얘기도 꺼내놓고 인생얘기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 다일공동체 밥퍼(무료급식사업)를 비롯해서 노인과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봉사가 습관이신 것 같아요. 꾸준히 봉사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봉사만 하면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져요. 웃음이 절로 나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하고 있는 사업이 바빠지면 지금처럼 봉사에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니까 여유 있을 때 많이 하려고 해요. 생각해보면, 봉사는 제 인생에 '보물창고' 같아요. 나에게 중요한 보물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게 해주니까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봉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01



02



03



04



05



06



07



0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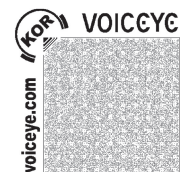
12

## 감동과 어울림이 깃든 실로암 해피스토리

- 01 유종필 관악구청장 복지관 자원봉사 진행\_7월 1일**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민선 6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 봉사자들과 함께 이어폰 포장조립봉사 및 낭독봉사를 진행했습니다.
- 02 주간보호센터 작물교실\_7월 2일**  
주간보호센터 옥상 텃밭에서 상추를 재배해 이용자와 봉사자들이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 03 심리정서지원사업 주말프로그램\_7월 11일**  
시각중복장애청소년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Mind up! grow up!'을 통해 기초체력운동 및 스쿠터 활동, 시트지 붙이기 활동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 04 재가시각장애인 3차 야외나들이\_7월 22일**  
지역사회지원센터는 경기도 이천 도니울마을에서 제3차 야외나들이를 진행했습니다. 표고버섯 수확과 두부 만들기 등 특별한 체험이 이뤄졌습니다.

- 05 2015 설리버 여름 캠프\_7월 24~30일**  
시각장애 아동, 청소년, 가족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가족캠프와 아동캠프(7/24~26)가, 경기도 이천시 테마공원 등에서 청소년캠프(7/29~30)가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 06 대학생 영어토론수업\_7월 27일~8월 17일**  
학업 및 취업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시각장애대학생에게 맞춤형 영어교육을 제공하고자 올해 여름방학부터 대학생영어토론수업이 신설되었습니다.
- 07 동화작가와의 만남\_7월 31일**  
한국학생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동화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누에가 자라고 자라사>의 정미라 작가는 이날 복지관을 방문해 책을 집필한 배경과 누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08 수상스키, 래프팅 진행\_7월 8~9일, 7월 15~16일**  
문화체육지원센터는 하계레저스포츠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상스키와 래프팅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 시각장애학생 음악캠프 '필하모니' 열려



지난 8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음악적 재능과 열정을 지닌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시각장애학생 음악캠프 필하모니'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프는 음악적 잠재 능력이 뛰어난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예술적 재능을 넓히고, 전문 음악인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오디션 등을 통해 선발된 총 12명의 학생들은 실력 있는 대학 교수진으로부터 일대일 개인지도를 받았으며, 멘토스쿨, 공연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음악인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는 유명 재즈피아니스트인 김광민 교수가 멘토로 초청되어 시각장애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캠프 마지막 날에는 학생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필하모니 음악회'가 열려 이목을 끌었습니다. 올해 음악회는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마련된 후원 기금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있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김민주 학생은 "실력 있는 교수님들을 만나 일대일로 레슨을 받을 수 있어 기뻐요, 음악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김미경 관장은 "음악캠프가 시각장애학생들이 장애를 딛고 일어나 실력으로 인정받는 음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손끝으로 악보를 살피고, 눈이 아닌 마음으로 음악을 표현해내는 시각장애학생들. 음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들이 가진 다양한 꿈들이 머지않아 꼭 현실로 이뤄질길 바랍니다.

\* 본 음악캠프는 보건복지부, 네이버해피빈, 신한은행, 현대건설, 현대힐스테이트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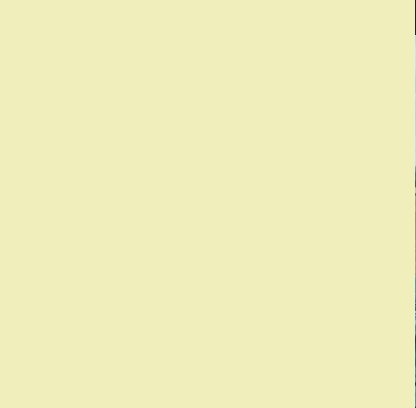
09



10



10



14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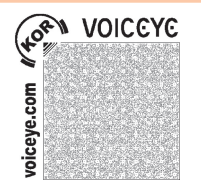
13



14



15



# 2015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 진행



지난 8월 27일(목), 시각장애 대학생들의 꿈을 후원하는 '2015년 하반기 효명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수여식을 통해 시각장애인 대학생 14명에게 총 4,25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는데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여식에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와 장학금을 후원한 (주)AMO그룹의 김병규 회장, 한국장로신문 김건철 장로, 최동익 국회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2015년 하반기 효명장학사업에는 (주)한샘과 성주재단의 후원이 더해져 더욱 많은 시각장애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장학금이 전달되었습니다.

효명장학생 후배들을 만나기 위한 선배들의 참석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수여식에는 효명장학생 출신으로 한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정진 변호사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진창원 연구사가 참석해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을 전했습니다.

효명장학금을 수여한 김희진(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 2학년) 학생은 "시각장애인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소감을 밝혔으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이사장 김선태 목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이다. 여러분을 위해 장학금을 후원하는 따뜻한 손길들을 기억하길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효명장학사업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인성이 반듯한 시각장애인 대학생을 발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하반기까지 총 177명의 효명장학생들을 발굴했으며, 약 6억 4천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 09 2015년 3차 이료심화교육\_7월 23~24일**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광주광역시수원원에서 3차 순회이료심화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10 수요법률지원서비스, 금융상담\_연중**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법률적 고충을 덜고 법적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매주 수요일 삼성 법률봉사단과 함께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정보 및 재무 설계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일대일 금융상담을 진행 중입니다.
- 11 책문화로 만나다\_8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책은 재밌다) 김소라 작가와 함께 <꿈꾸는 월리>와 <행복한 돼지>를 읽은 후 행복에 대한 그림책 찾기, 나의 행복한 순간 그리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12 낭독봉사자 교육\_8월 20일**  
신규낭독봉사자를 대상으로 KBS 배창복 아나운서가 낭독법과 표준발음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 13 3차 활동지원사업 나들이\_8월 22일**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은 종로구 해화동에 위치한 동양예술극장에서 뮤지컬 '빨래'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14 2015 잡헌팅 캠프\_8월 25~27일**  
고용지원센터는 2박 3일간 KT&G 강화수련관에서 잡헌팅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시각장애 대학생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매칭되어 다양한 취업 강의를 듣고 신나는 갯벌체험 등을 진행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 15 나만의 스타일 만들기\_8월 29일~9월 1일**  
실로암자립생활센터는 사회진출을 앞둔 여성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 코디법, 테이블매너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필요한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눈과 귀가  
먼 소녀  
마리에게  
가르치는  
세상



### 영화 <마리아 이야기: 손끝의 기적>

빛도 소리도 없는 세상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영화 <마리아 이야기>는 바로 '한 사람' 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는 시청각장애인과 그녀를 돕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에는 빛을 비춰주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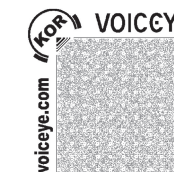
#### 프랑스판 헬렌켈러의 감동실화

<마리아 이야기>는 시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소녀 마리가 마가렛 수녀를 만나 변화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담아낸 실화입니다. 영화는 마리가 침묵 속에서 수녀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첫 장면으로 담고 있는데요, 빛도 소리도 없는 세상 속에서 그녀를 구해내는 건 바로 마가렛 수녀였습니다.

영화 속 실재 인물인 마리 외르탱(1885~1921)의 상태는 사실 헬렌켈러(1880~1968)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간이 기보다는 한 마리의 야생동물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마리를 만난 마가렛 수녀는 감옥 같은 세상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소통' 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러닝타임 내내 이어지는 둘 사이의 이야기는 사실 아름답기보다는 처절할 때가 많지만 씩고, 입고, 먹는 일부터 수화를 배우는 일까지, 전쟁과도 같은 과정을 겪으며 소녀는 결국 변화합니다.

마리를 연기한 신인배우 아리아나 리부아는 실제 청각장애인이라 더욱 극의 몰입도를 높여주는데요, 본 영화는 얼마 전, 배리어 프리 버전으로 제작이 확정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위적이고 극적인 사건들을 배치하는 대신, 반복되는 소소한 일상을 그려내며 마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주는 영화 <마리아 이야기>. 잔잔한 감동,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는 본 영화를 통해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적이 되는 '한 사람' 인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3세  
소년이  
만든

### '레고(Lego) 점자프린터' 화제

13살 소년이 호기심에서 만든 점자프린터가 창업으로까지 이어져 화제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슈브함 바네지(Shubham Banerjee). 평소 갖고 놀던 레고를 사용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프린터의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소년의 독창적인 점자프린터 개발스토리는 최근 인텔 코리아의 SNS에 소개되며 다시 한 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호기심으로 탄생한 최저가 점자프린터

2013년 바네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프린터가 있어야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 점자 프린터 가격이 매우 고가이고, 무게도 9kg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날부터 바네지는 시각장애인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점자프린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소년이 사용한 것은 두 살 때부터 갖고 놀던 레고의 조립용품 세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번기 물을 내리는 로봇부터 범퍼 카까지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레고 제품을 사용해 소년은 3주 만에 점자프린터를 개발했습니다. 개발에 든 비용은 레고 세트 가격인 41만원 정도. 이는 기존의 점자프린터 가격보다 4분의 1 이상 저렴합니다.

그렇게 2014년 2월,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점자프린터 '브레이고(Braigo)'의 첫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성능은 괜찮지만, 폭이 좁은 종이만 인쇄되는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는 브레이고 랩스(Braigo Labs)라는 회사를 차렸고,

같은 해 11월 인텔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현재 '브레이고 1.0'의 설계도 및 소프트웨어는 학교나 기관, 가정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소비자 글의 피드백을 거친 '브레이고 2.0'은 판매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되어 올해 안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한 비싸고 무거운 점자프린터의 문제를 풀어낸 한 소년의 열정. 그의 목표대로 올해 하반기 500달러 이하의 상용모델이 출시되면 브레이고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저가형 점자프린터가 될 것입니다. 본 제품이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 나와 시각장애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레고 점자프린터 : 압정을 이용해 종이에 점자를 찍는 방식이다. (사진출처\_브레이고 랩스 페이스북)  
2. 레고 점자프린터 개발자 슈브함 바네지(사진출처\_브레이고 랩스 홈페이지)

Program & Notice

행사 및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 하반기 음악접자교육

음악적응·교정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 있는 시각장애인 및 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악접자교육과 자격증 제도에 대한 음악적응·교정사 양성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5년 9월 2일(수)~11월 5일(목)
- 장 소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내 교육실
- 문 의 : 02-880-0671 효명음악팀

우즈베키스탄 장애인 교육재활지원사업 기증식 진행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국제장애인지원센터는 2015년 4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으로 Soglom Avlod Uchun재단과 협력하여 우즈베키스탄 장애인을 위한 교육재활지원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지 장애아동 특수학교에서 교육재활지원사업 기증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3일(토)
- 장 소 : 타슈켄트 국립맹학교(9시)  
우즈베키스탄 아항가란시 장애아동 제58특수학교(13시)

카페모아 5호점 가산점 개점

카페모아는 세계최초 시각장애인바리스타가 운영하는 카페로 1999년 개소 이래 실로암본점, 숙대점, 관악구청점, 실로암안과병원점의 운영으로 장애인직업자립생활의 성공모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 올해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신규사업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산디지털단지 내 빌딩가에 개점하게 되었습니다. 카페모아 5호점 가산점은 여성시각장애인 바리스타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을 물론,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15일(목) 14시
- 장 소 : 금천구 가산동 60-73번산디지털밸리5차 1층 카페모아
- 문 의 : 02-880-0585, 02-2082-5580 근로사업장

2015 하반기 사랑나눔 바자회

저소득중증시각장애인의 물품지원비 마련을 위해 물품 및 먹거리 판매와 인식개선부스 등이 포함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 장 소 : 봉천역 4번 출구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앞
- 일 시 : 2015년 10월 16일(금)
- 문 의 : 02-880-0824 지역사회지원센터

2015 배움올타리 워크숍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함양 및 친목도모를 위해 1박 2일 여행을 실시합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21일(수)~22일(목)
- 장 소 : 미정
- 문 의 : 02-880-0827 지역사회지원센터

보조공학 박람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15년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인식개선과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정보기술개발팀은 본 박람회에 참여하여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 장 소 : aT센터 1층 제1전시관
- 일 시 : 2015. 10. 22(목)~10. 23(금)
- 문 의 : 02-880-0523 정보기술개발팀

관련맹인전통예술단 제4회 정기연주회

시각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관련맹인전통예술단은 조선시대 관련맹인제도의 재현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2011년 3월 창단 이후 다양한 국내외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보다 풍성한 우리가락과 아름다운 연주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 장 소 : 국립국악원 예약당
- 일 시 : 2015년 11월 14일(토) 17시
- 문 의 : 02-880-0693 관련맹인팀

2015 실로암콘서트

음악재활아카데미 교육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잡재된 예술성과 음악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장 소 : 서울여성플라자아트홀 ‘봄’
-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 문 의 : 02-880-0668 음악적응팀

적응·교정사 시험대비 국어점자교실 운영

적응·교정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점자상식과 규정을 교육함으로써 미래의 대체도서제작자를 양성합니다.

- 대 상 : 등록시각장애인, 일반인
- 일 시 : 연중
- 장 소 : 점역사 클래스(3층 3-2교육실) 교정사 클래스(5층 5-4교육실)
- 문 의 : 02-880-0639 적응팀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 “Let, IT, go!”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및 정보접근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체험관을 운영 중입니다. 본 체험존에서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스마트 가전기기 등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 대 상 : 서울시민
- 일 시 : 연중
- 장 소 : 복지관 5층 시각장애인 IT생활체험존
- 문 의 : 02-880-0541 정보기기지원팀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일반후원계좌</b>	하나은행 577-910002-13904 (예금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b>시각장애인 개인수술지원</b>	하나은행 577-910005-38004 (예금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b>실로암요양원후원계좌</b>	하나은행 577-910008-12104 (예금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b>CMS 정기자동이체 신청</b>	전화문의 홍보팀 02-880-0868

※ 귀하가 후원하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복지관 후원	개인수술후원	실로암요양원후원	복지회후원	총액
7월	5,818,400	1,535,000	4,757,086	8,051,412	20,161,898
8월	23,501,300	175,000	2,486,490	177,534,845	203,697,635

후원자명단

복지관 후원

강문창 강미숙 강미혜 강민석 강창구 강희원 고선용 고선화 고슬기 고지후 광정훈 광현용 권승해 권정홍 권정희 김경국 김경애 김경지 김계심 김광훈 김규남 김근하 김기수 김기영 김누리 김다혜 김도연 김동진 김명아 김무논 김미경 김미선 김미영 김미정 김민경 김민식 김민정 김보정 김상수 김상영 김선아 김선주 김선하 김성애 김성자 김성진 김성찬 김성화 김성훈 김세연 김소정 김소희 김 수 김숙현 김순호 김시윤 김양수 김영순 김영은 김영준 김영진 김예은 김용화 김우도 김원봉 김윤진 김은민 김은실 김잔디 김재민 김재성 김재환 김정은 김종규 김주리 김 준 김준영 김 중 김태희 김해인 김현도 김현정 김혜민 김혜인 김호남 김호정 김희연 김희영 나가연 나민형 나병택 나서휘 남기윤 남우현 남정환 노계정 노성은 노위제 노하영 노형석 당호영 당화정 도윤희 명태순 문정미 문홍수 민경나 민광기 민병탄 민성환 민수진 박경선 박경숙 박고심 박대삼 박문숙 박미량 박민규 박상도 박세근 박세희 박솔인 박수호 박순이 박예지 박옥련 박용일 박은애 박정복 박중원 박지연 박지영 박지훈 박하니 박현수 박혜림 박화경 방명애 배은정 배중석 배지혜 백순복 봉하중 서송교 서원호 서의승 서효림 서희경 성지영 성지혜 손지애 손지영 송경원 송영화 송은숙 송은정 송재용 신덕수 신동선 신선화 신성만 신영석 신종현 신혜경 신홍연 심권섭 심재민 심재숙 안연광 양관동 양민정 양호열 엄경순 엄현희 엄리라 오승범 오지수 오태훈 오한나 우재연 유금옥 유남주 유미현 유보영 유자영 윤나라 윤대현 윤명현 윤보라 윤성재 윤소정 윤진국 윤하영 이광성 이규성 이길원 이동형 이동훈 이로사 이루미 이면우 이미영 이민기 이민환 이봉희 이상철 이상현 이선래 이선미 이선민 이선아 이설한 이세희 이 송 이예성 이예일 이육희 이요한 이운선 이원재 이은별 이은정 이응무 이인애 이재용 이재은 이재희 이정아 이정원 이정인 이정춘 이정현 이주호 이지선 이지영 이지원 이지훈 이진웅 이진중 이진형 이찬신 이창현 이창호 이태섭 이태준 이하영 이한미 이현숙 이혜현 이화정 임명숙 임은성 임중재 장석철 장선희 장수진 장용진 장은경 전경모 전영숙 전정자 정근우 정다운 정미실 정민지 정보성 정성민 정성수 정수진 정연상 정영임 정옥자 정지현 정지혜 정태준 조건희 조남주 조몽근 조미경 조봉래 조원명 조유진 조은일 조은하 조진만 주재은 최경록 최덕영 최동미 최동익 최두수 최병현 최승원 최윤옥 최재석 최중철 최진수 최찬삼 하은성 하은주 하중백 하효선 한성희 한숙자 한승진 한영실 한재경 한재운 한순식 함요한 함주영 함지연 홍관용 홍성현 홍예진 홍일선 홍정연 홍호선 황소영 황순화 황정수 황호영 BHC치킨 KT&G 상상펀드기금운영위원회 KT&G복지재단 봉이돈가스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실로암안과병원 아모텍 아워홈 코웨이 평광고회 한 샘 해오름교회 해피빈

개인수술 후원

김애경 김중호 김혜순 백운현 서인선 이상훈 정인영 정향산 동부산교회 서울동노회여전도회연합회 한샘

실로암요양원 후원

강정숙 권혜진 김광한 김광희 김동희 김무경 김병숙 김복휘 김선태 김숙현 김영선 김은철 김은희 김인경 김정숙 김정옥 김중훈 김태연 김태웅 김현도 김형도 김호직 박성일 박은애 박주희 백하정 서문섭 성옥순 안교만 안정임 오태훈 윤찬호 이금선 이미경 이복희 이봉희 이숙경 이순희 이소영 이영태 이정원 이정환 이종열 장혜승 조미경 조이라 조영순 지정규 최영훈 하영태 하화차 한명희 한재근 함은창 함지영 함현식 광적하나마트 남원주어탕 실로암안과병원 아워홈 지엘엠세미콘 코리아마트 효명교회

복지회 후원

권수진 권영진 금옥연 김경진 김남식 김미경 김미라 김미혜 김민주 김민혜 김서진 김성훈 김아름 김애경 김유빈 김정래 김정옥 김주연 김현석 김현정 나병택 남정환 노하연 노현기 맹성희 박상근 박성철 박옥희 서범수 신영실 심아름 양미나 유은분 윤재훈 이도건 이동희 이민정 이상정 이성표 이우진 이윤아 이창현 이하나 이형철 임 영 임영희 전영옥 정대영 정정자 정종일 조경자 조현금 최동익 최상국 하미진 허승희 황윤희 동일교회 소나무장학회 카페모아 한샘 해피빈

※ 후원금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후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